인 사 말

식품안전에 대한 올바른 정보 생산 및 전달 역할을 담당하는 집단지성

오 세 욱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부회장 /
국민대 교수

코로나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전파된 지 어느새 1년이 넘어간다.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예방지침에 따라 대학교 근처 식당 및 노래방 등이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다.

다행히 백신이 수입되어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혈전이 생성된다는 언론 보도에 백신을 회색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일반 시민은 매우 낮은 비율로 혈전이 생성되므로 이를 감수하고 백신을 접종받을지, 아니면 남에게는 매우 낮은 확률이지만 나에게 발생하면 100%라는 생각으로 백신 접종을 미룰지 걱정이 많다. 그런데 백신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또한 효과적으로 전달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백신에 대한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비판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만 넘쳐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가짜 정보, 미신이 무차별적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다양한 SNS를 통하여 확대 전파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모 유업회사의 발효유가 코로나바이러스 사멸에 효과가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In vitro assay이고 또한 임상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섣부른 발표라고 생각되었지만, 주가가 요동을 치는 등 소비자의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관련사는 식약처로부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고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관련사는 심포지엄 과정에서 해당 실험이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 단계의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코로나 관련 오해를 일으킨 점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하였다.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실패 사례로 생각된다.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는 학교, 정부와 기업체의 식품안전 지성이 모여 같이 활동하고 있는 집단지성이다. 코로나와 관련된 궁금증은 물론 이거니와 식품안전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줄 올바른 정보의 생산과 이를 일반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Risk communication의 전문집단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해 본다.